



3면

"신속 복구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계기"

# 전주매일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음 2월 5일)

제29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전북도, 정부 방침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오후 11시까지

20일까지 2주동안 일부 완화... 민생경제 어려움 감안

정부는 오는 3월 13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 20일까지 약 2주간 영업시간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도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방역패스 중단 및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거리두기 정책의 수용성 저하를 고려해 이번 조정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약 2주간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하면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거리두기 조정사항에 따라, 도민의 심리적 방벽이 완화된 만큼, 기본 방역수칙 준수 홍보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 사업장 실내방송, 승강기 홍보패널 등 가능한 모든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시·군 및 출연기관 직원들과 솔선수범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시 투표장 방역활동 및 재택치료자 선거 참여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투표장 내 감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소독, 기표대 분리 설치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투표사무원 감염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격리자 등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투표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것은 백신 접종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부작용이 줄어든 노바백스 백신 접종에 미접종자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접종을 당부"드리며 "재택치료자 중 선거에 관련한 문의는 관할 시·군 행정안전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며 "오미크론 치료 방안에 맞춰 중증환자 치료와 재택치료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도민들께서는 스스로 방역관리자라는 마음으로 기본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희상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시작 시간에 맞춰 투표할 하기 위해 몰린 유권자들로 장내가 북적이고 있다. 사전투표는 5일까지 이어졌으며 전북지역의 사전투표율은 48.6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20대 대선 전북 사전투표율 48.63%

19대 대선보다 16.99%p ↑

전남에 이어 전국서 두번째

14개 시군 중 진안이 59.66%

제20대 대통령 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48.6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져 최종 투표율이 지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다시 80%를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0년 총선에서 최종 사전투표율은 26.68%였다.

지난 19대 대선 최종 사전투표율 26.06%였다.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은 48.63%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세웠다. 전북은 전남도(51.45%)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높았다. 경기도가 33.68%로 가장 낮았고, 제주(33.78%)와 대구(33.91%)의 순으로 낮았다.

서울은 37.23%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앞서, 전북지역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 34.75%였다. 19대 대선 전북 사전투표율은 31.64%를 각각 기록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유권자 4,419만 7,692명 중 1,632만 3,602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해 36.98%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북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전북지역 유권자 153만 1,257명 중 74만 5,666명이 투표에 참여, 48.6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0년 총선에서 최종 사전투표율은 26.68%였다.

지난 19대 대선 최종 사전투표율 26.06%였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진안군이 59.66%로 가장 높았으며, 장수군 58.88%, 임실군 58.52%, 순창군 57.19% 순이다.

이어 남원시 56.54%, 부안군 54.97%, 고창군 53.47%, 정읍시 52.28%, 김제시 52.20%, 익산시 47.14%, 전주시 덕진구 45.58%, 군산시 45.37%이다.

전주시 완산구는 45.37%로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북은 전남도(51.45%)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광주광역시(48.27%), 세종시(44.11%)가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가 33.68%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가 절차 미흡 등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투표 마감도 지연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방역당국이 외출을 허용하는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사전투표가 종료된지 4시간이 지난 오후 10시쯤에야 최종 투표율이 집계됐다.

이날 사전투표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1~2시간씩 대기하는 등 투표소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는 기다리다 쓰러지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에는 따로 투표함이 없어 참관인이 박스나 쇼핑백을 이용해 기표용지를 대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은 오는 9일이다. /유희상 기자

## 전북을 국가대표 문화 중심지로... 도, 행정력 집중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262억 투입

전북도가 전북 자존의식을 제고할 핵심 문화기반시설 사업들을 본격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지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문화의 고장의 위상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올해 5개 사업에 262억 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5개 사업은 ▲대표도서관 건립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시청지미디어센터 건립 ▲문화예술인회관 건립 ▲국악원 증개축이다.

특히, 올해는 그간 문화예술인들의 열원이었지만 예산확보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던 사업들이 대거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문화 인프라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그동안 부족했던 문화·예술분야 시설은 건립하고, 노후된 시설 환경은 개선해 도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

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먼저, 한국 서예 대표공간을 마련하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지난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5월경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 착공,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대표도서관 건립은 그간 지방재정 투자심사 건축 설계 공모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했다. 지난해 11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도내 문인단체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문화예술인회관 건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원가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올해 3월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청지미디어센터는 현재 민성동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향후 설계 공

모,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완공 예정이다.

도립국악원은 지난해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6월에 착공해 2023년까지 신축 건물을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도서관(8개소), 작은도서관(10개소), 생활문화센터(13개소), 익산공예체험전시관, 남원국악전용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도는 이번에 신축하는 문화시설을 도민 중심의 공간이자 대표성과 통합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건립해 문화의 힘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윤희용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속적인 문화시설 확충으로 도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가치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북 자존의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상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